

응급구조과 학생의 첫 임상 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

백 미 레*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각종 사고나 재해, 재난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응급의료서비스는 다른 어떤 건강관리 분야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런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서비스는 자질을 갖춘 인력, 질적 교육 훈련, 적정의 시설, 및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 등이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⁵⁾.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으로서, 임상교육의 주된 목적은 이미 배운 지식을 학생들로 하여금 환자를 돌보는 실제 상황에 적용하도록 준비시키고,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행동방향을 터득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건강관리 기관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관이나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¹⁾.

즉 임상교육을 통해 응급구조과 학생은 1급 응급구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병원 전 응급현장이나 병원응급처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을 터득하여 이론과 실제를 상호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최대한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경험이 되도록 하여 병원 전 현장이나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전국 11개 대학에 응급구조과가 신설된 이후로 2002년 2년제에서 3년제로 학제가 개편되며 좀더 전문적인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여 전문 응급구조사라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여 응급현장에서 전문응급구조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강의와 실습을 강화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응급구조과의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병원 응급실에서의 임상실습과 소방서 구급대의 구급차 동승 실습으로 구분하여 이수하고 있다. 구급차 동승 실습이 병원 전 단계에서 현장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미 배운 지식과 능력을 1급 응급구조사로서 환자를 처치하고 돌보는 실제 상황에 적용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면, 응급실에서의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응급상황에서의 다양한 환자 처치를 경험하여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임상실습의 주 부서인 병원의 응급실은 응급의료의 가장 큰 단위로서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환자들에게 정확한 문제점이나 진단도 내리지지 않은 시점에서 즉각적인 처치와 도움을 제공해야하는 부서이고, 응급실에서의 응급처치가 얼마나 정

* 청주과대학학

확하게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환자의 장애율과 사망률이 줄어들고¹⁶⁾, 익숙한 강의실과는 다른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 낮은 임상 실습환경에서의 적응은 경험 부족, 전문지식부족, 자신감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고 특히 첫 임상실습은 다른 어느 경우보다도 더 심각한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하는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⁹⁾.

임상실습 시 학생들이 갖는 스트레스는 임상교육을 저해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¹⁵⁾, 기대에 어긋난 실습경험으로 응급구조사의 역할에 대한 불만족이나 좌절감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응급구조과 학생처럼 응급실 등의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학생에 대한 양적 질적연구들이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박¹¹⁾ 등의 첫 임상실습에 대한 인지정도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성인식도와 만족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고 스트레스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신경림¹⁴⁾은 van Manen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첫 임상실습 경험에 대해 크게 3단계인 환상기(실습초기), 혼란기, 도전기(실습말기)로 나타내고 있으며, 문⁷⁾의 연구에서는 기대감과 더불어 생소함과 부담감으로 임하여 의료인등의 역할모델의 지도와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관찰함으로써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방법과 인간관계유지 및 자질을 배우고 첫 임상실습에서 간호직에 대한 적성을 점검하고 진로선택에 대한 확신 및 간호인으로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¹⁰⁾의 임상실습 경험이 일상생활의 변화, 성격의 변화, 자존감 저하, 부담감, 내적 성숙의 5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어 나타났고, 응급실 실습을 중심으로 한 전점이의 연구에서는 간호행위 경험과 간호행위 경험을 통한 느낌으로 나타내었다.

그동안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응급구조과 학생 현장실습의 실제와 개선 방안⁴⁾, 고²⁾의 응급구조과 학생의 현장실습 수행활동조사연구, 최²⁰⁾의 일부 응급구조전문대학생의 자

아개념과 현장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⁸⁾의 응급구조학생들의 실습대상지별 현장실습 만족도 등의 현장실습 중심의 양적연구들이 있으며, 임상실습에 대한 연구로는 진¹⁹⁾의 응급구조과 학생이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만이 있다. 이 중 질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임상실습의 주체인 실습학생들의 입장에서 실습경험을 다룬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첫 임상실습경험을 조사함으로써 임상실습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바를 보다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 효과적인 임상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첫 임상실습 경험을 조사함으로써, 임상실습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실습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3. 연구문제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첫 응급실실습에서 경험한 바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개인이 경험하는데로의 의미에 중점을 두어 본질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는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응급실실습을 처음 경험한 응급구조과 학생의 진술을 분석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C시에 소재한 대학 응급구조

과의 처음 응급실실습을 경험한 2학년 학생 30명이다. 연구 대상자는 응급의학의가 근무하는 S시, C시의 응급실과 T시, W시에 소재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서 8주 동안 실습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뒤 참여여부를 확인하여 참여할 것에 동의를 얻었다.

3.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측면고려

면담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다시 설명하고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써여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의 첫 단계는 8주 동안의 실습이 끝난 다음 학생들에게 처음 임상실습동안의 경험을 백지에 자유롭게 써보도록 하여 제출하게 하였으며, 전체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첫 면접 후 추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다음 날 재 면접을 반복하였지만 7명 이후부터는 유사한 자료가 반복해서 나오고 새로운 주제가 발견되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총 7명이 선정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6월 23 일~2003년 6월 27 일까지였으며 면담 시에는 주로 경청을 하며 연구자의 견해가 연구대상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상자의 반응에 긍정하지도 않고 판단이나 비판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으며 중립적인 자세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자료의 분석절차는 Colaizzi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와 면접한 내용을 되도록 면접한 당일에 녹취한 내용을 경청하며 옮겨 적었고 연구자가 관찰한 느낌도 적어 넣었다.

2) 대상자가 서면 기술한 자료 및 면접 자료에서 의미있는 진술들을 도출하였다. 205개의 의미있는 진술이 확인되었다.

3)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언어를 과학적인 언어로 변형시키기 위해 의미있는 진술을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 진술하였다.

4) 의미있는 진술과 재 진술로부터 87개의 도출된 의미(formulated meaning)를 이끌어 내었다.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1인에 의해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5) 도출된 의미에서 34개의 주제(Themes)를 확인하고 확인된 주제로부터 다시 21개의 주제모음(Themes clusters)과 8개의 범주(categories)를 확인하였다.

6) 자료의 분석결과를 임상실습경험으로 통합하였다.

7)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된 3명의 연구 대상자들에게 임상실습에 대한 경험 내용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기술된 것이 그들의 경험과 같다고 동의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응급구조사의 첫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4개의 주제, 21개의 주제모음, 8개의 범주가 확인되었으며 도출된 범주와 주제모음, 주제와의 관계는 표 1과 같다.

즉,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서 오는 긴장감', '환자를 대할 때의 두려움', '지식과 술기능력부족', '적응이 되면서 느끼는 자신감', '응급구조사 역할에 대한 지식', '실습 후의 아쉬움', '죽음의 체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첫 임상실습 시 '새로운 상황에서 오는 긴장감'을 경험하였다.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새로운 상황에 접하면서 커다란 긴장으로 눈치를 보게 되고 익숙하지 않은

표 1. 응급구조사의 첫 임상실습 경험의 주제, 및 범주

범 주	주 제 모 음	주 제
새로운 상황에서 오는 긴장감	이질감	눈치가 보이고 이방인 같다. 냉정해 보이고 거부감이 들었다.
	위축감/무가치함	주눅이 들었다.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진다.
	실습에 대한 두려움	익숙치 않은 상황이 어색하고 두렵다. 실습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새로운 실습에 대한 기대감	무엇이가를 환자에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환자를 대할 때의 두려움	두려움/불안	중증 환자를 대할 때 겁이 난다. 환자를 대할 때 당황스럽다. 전염될까봐 걱정되고 불안하다.
	무력감	기술실패 시 죄송하고 당황스럽다. 응급상황에서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한심스럽다.
지식과 술기능력 부족	지식부족에서 오는 답답함	의학용어를 몰라 의사소통이 안되어 답답하다.
	지식습득의 욕구	알고 싶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즐겁다.
	익숙함	병원이 편안하고 실습에 여유가 생겼다. 반복적인 생활이 지루하다.
적응이 되면서 느끼는 자신감	보람	치료를 도움되고 인정받았을 때 뿌듯하다. 잘 적응하는 내 자신이 대견스럽다.
	역할 정체성에서 오는 혼란	병원내에서의 응급구조사역할이 모호하다. 실습학생역할의 모호하다.
	응급구조사역할 필요성 인식	현 응급의료체계현실에 대해 실망스럽다. 응급구조사직에 대해 애착과 희망을 가진다.
실습후의 아쉬움	아쉬움	다음 실습에서 더 열심히 할 것이다.
	고마움	도와주셨던 의료진과 환자에게 고마움 느낀다.
죽음의 체험	생명의 소중함	질병과 싸우는 환자와 자살자가 대조적이다.
	죽음에 대한 무력감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죽음에 대한 무감각	죽어가며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 죽는 환자를 자꾸 보니 무덤덤해진다.
	죽음과 현실에서의 괴리감	죽음 앞에서 실습기회를 생각한 자신에게 놀랐다.
스트레스	환경변화로 오는 어려움	숙식의 어려움과 출퇴근 거리가 멀어 힘들었다. 밤 근무와 3교대로 인해 잠을 못자고 설 수 있는 공간도 없어 내내 피곤하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공동생활로 실습생끼리 팀웍이 힘들고 더 갈등이 생기는 것 같다. 의료진들이 무시하며 신뢰하지 않고 차별대우를 당할 때 비참하다.
	보고서에 대한 부담감	늘 보고서에 대해 걱정된다.

모습에 당황하게 되고 다들 바쁘게 돌아가는 응급실이라는 실습현장에서 혼자만이 이방인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고 응급실에서 처음 만나는 의료진들이 너무 냉정해보여 거부감조차 들었다고 한다.

“처음 보는 바이탈(활력징후 측정)제는 기계 사용법을 몰라 당황했다. 모든 것이 처음에는 순서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다들 바빠하는데 나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스테이션에 계속 서있었다. 모두들 바쁘게 한가한 내 모습이 이방인 같았고 차트를 보는 것도 신경 쓰이고 결리적거릴까 봐 조심스러웠고 눈치가 보였다. 처음에는 다들 너무 냉정해 보여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못 잡아도 물을 수가 없었다.”

또한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생소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자신감이 결여되고 심지어 실습장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지는 무가치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한다.

“주눅이 들고 마치 꺾다 논 보리 자루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눅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잘 안되고 내가 고작 이것밖에 안되는 놈인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모두들 환자 처치로 바쁘게 뭘 해야 하는 건지 몰라 별쪼하게 멍하니 서 있으며 응급실에서 내가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말을 시키지 않아서 내가 물건처럼 느껴지고 존재가치가 의심된다. 심정지가 발생해서 정신없이 바쁠 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실습 초기에는 처음 본 응급실의 상황이 실습생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그런 응급실에서 실습을 해야 한다는 것에 두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정말 실습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느꼈다고 한다.

“처음 응급실에서 실습하던 날, 많은 환자와 정신없이 바쁜 의료진들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여기서 실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떨리고 두려웠다.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들고 걱정이 되었다.”

반면, 실습 전에 실습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쁜 환자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기도 하였다.

“처음 가는 응급실에 호기심도 생기고 응급실에 가면 학교에서 배웠던 많은 병을 가진 환자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고 내가 환자들에게 정말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슴 설레고 너무 기대가 되어 잠이 안 왔어요..”

‘새로운 상황에서 오는 긴장감’에 대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³⁾와 신¹⁴⁾의 연구에서는 ‘긴장감’과 준비되지 않은 이질감^{으로 표현되었으며 문⁷⁾의 연구에서는 ‘생소함’과 ‘기대감’으로 표현하였다.}

주로 실습 1주일 내의 시작 시기에는 생소한 실습현장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증대된 긴장감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 시기에는 병원의료진들과 실습담당 교수의 관심과 지지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빠른 시간 내에 긍정적인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나 비 침습적 술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같은 팀의 일원으로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일치감으로 더 긍정적인 실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첫 임상실습에서 ‘환자를 대할 때의 두려움’을 경험하였다.

병원처치의 첫 단계가 행해지는 응급실에서의 많은 응급상황을 처음 경험하는 실습생으로서는 중증 환자를 대할 때 심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실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서도 여러 경우의 중증 환자들이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실습생들은 환자와의 대인관계 형성에서 심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닌 환자에게 다가가서 병력조사 등의 인터뷰와 간단한 처치를 행할 때 떨리고 불안함을 경험하였고 미숙한 대인관계능력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화를 낸다든지 예상치 않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또한 응급실에 내원한 전염성 환자에게 대해 전염성 질환의 전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환자 가까이 가는 것을 피하기도 하였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환자의 근육이 만져질 때 부러진 뼈가 손을 찔러 소름이 끼쳐 도망가고 싶었다.”

“75% 화상환자를 드레싱하는 도중 너무 무섭고 징그러워 토할 뻔했다.”

“앰브잡고 밤에 구급차 이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무섭고 떨렸다.”

“처음 환자에게 다가가 바이탈을 재야하는데 말도 잘 안나오고 맥박을 잡을 땐 내 맥박이 더 크게 뛰는 것 같았다.”

“L-tube를 해주려고 하는데 환자가 신경질을 부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알코올중독환자가 고함지르고 막 화를 내서 옆에 가기가 싫었어요...”

“에이즈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는 서로 서로에게 에이즈환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혹시라도 전염될까 봐 가까이 가지 않았다.”

“활동성 결핵 환자가 왔을 때 바이탈을 하러 가야 하는 데 마스크를 착용해도 무섭고 두려워 환자 곁에 가기 싫었다.”

본 연구에서의 ‘환자를 대할 때의 두려움’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¹³⁾와 고³⁾, 문⁷⁾의 연구에서는 실습 초기의 ‘두려움’으로 표현하였다.

실습 초기에 숙련되지 않은 술기를 행할 때 나타나는 두려움과 미숙한 대인관계와 임상경험 부족에서 나타나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실습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초기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별적인 지도와 지지가 특히 실습 초기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첫 임상실습에서 ‘지식과 술기능력 부족’을 경험하였다.

학교에서 교내실습만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네킨이 아닌 실제 사람에게 처치술기를 행할 때는 미숙함으로 인해 당황하고 처치 실패 시 환자나 보호자가 화를 내면 더 위축되어져 무력감을 경험했다고 한다.

“샘플링(혈액채취)을 여러 번 하게 돼서 환자분이 화를 내지는 않으셨지만 무척 죄송하고 당황스러웠어요...”

“정맥로 확보를 처음으로 시도했었는데 실패하고 두 번째 다시 하려고 할 때 옆에 계신 보호자 분이 무척 화를 내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CPR을 실제 환자에게 해보라고 할 때 긴장되어 실습할 때처럼 잘 안 되어 아쉽고 체력이 떨어져 CPR도 제대로 못하나하는 무력감이 들었다.”

응급실내에서 회진이나 의료진끼리의 대화나 기록지에 의학용어를 사용함으로 의학용어를 배웠지만 익숙하지 않은 실습생에게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답답함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병원 전 처치 위주로 학습한 실습생에게는 병원 내 처치인 응급실에서의 처치 중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더 답답함과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한다.

“의학 용어를 알아들을 수 없어 의사소통이 안 되어 나 혼자 먼 나라를 헤매는 느낌이였다.’

“회진 돌 땐 다른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은 다 알아듣는데 나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답답했다. 의사 선생님이 무얼 물으셨을 때 못 알아들었지만 쟁피해서 다시 묻지도 못하고 눈치로 때려잡았다.”

이런 어려움과 답답함은 강한 지식습득의 욕구를 불러 일으켜 학습촉진제 역할을 하였고 새로운 지식 습득 시 즐거움을 경험했다.

“응급실에 많은 환자들이 왜 그런 병을 앓고 있는지 정말 많이 알고 싶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워 환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자상하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하나 배우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새롭고 신기하기까지 했다.”

응급구조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¹⁹⁾의 연구에서 ‘지식과 기술 부족으로 인하여’는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지식과 술기능력 부족’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³⁾와 문⁷⁾의 연구에서는 ‘지식 및 기술 부족에 따른 어려움’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나타나 간호학생들도 지식과 술기의 미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실습을 나간 학생들이어서 교과과정상 병원 전 응급처치를 중심으로 교육이 되어 있어 응급실에서 접할 수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데는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되지만 이런 많은 경험들은 실습과 연계된 다음 학기 교육에 대한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째,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첫 임상실습에서 ‘적응이 되면서 느끼는 자신감’을 경험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습에 조금씩 익숙해져 실습에 여유도 생기고 편안함을 느끼기도 했다.

“간호사들과도 조금씩 친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실습도 재미있고 내 집처럼 편안하고 시간이 빨리 갔다. 나름대로 익숙해져 이번 주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실습해야지라는 계획도 세우게 되었고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를 보면 아 무슨 환자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는 알게 되니까 스스로 찾아서 준비도 하게 되고 자신감도 생겼다.”

라는 진술에서 실습상황에 익숙해짐을 경험하게 됨을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은 반복적인 실습 환경에 익숙해져 지루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의욕은 강하지만 반복되는 하루하루에 점차 지루해지고 타성에 젖어 시간이 갈수록 처음 의지와는 다르게 나타해졌다.”

반면, 환자처치를 도와 환자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보람을 느끼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한 시술에 성공하였을 때, 또 다른 의료진에게서 잘한다 또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으면 더 보람을 느끼게 됨을 경험하였다. 점차 익숙해지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힘들 거라고 걱정했던 실습을 잘하고 있는 모습에 스스로가 대견스럽고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CPR하면서 등에 땀도 나고 너무 힘들었는데 환자가 살아났을 때 너무 기쁘고 내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신감이 들고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심전도를 찍을 때 잘 찍어 뿌듯했다. 환자나 의료진에게 도움이 될 때 기쁘고 뿌듯했다.” “처치를 한 뒤 뽀뽀하다 친절하다는 칭찬을 들어 기분이 좋았다.”

“비위도 약한 내가 잘 적응해 실습을 잘 해낸 자신이 뿌듯해 미치겠다. 실습을 잘 해낸 내 자신이 대견스럽다.”

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강의실에서의 학습보다

임상실습장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고 환자 상태가 호전되거나 시술에 성공하였을 때 강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성에 젖어 지루해지는 경험도 있어 실습이 진행되면서 좀 더 실습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규칙적인 실습장 방문 등을 통한 실습 지도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첫 임상실습에서 ‘응급구조사 역할에 대한 지식’을 경험하였다.

응급구조사의 병원 내 역할이 모호하다고 느꼈으며 역할 정체성에서 오는 혼란을 경험하였다.

또한 병원 내 응급구조사 역할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습을 지도할 의료진 중에도 응급구조과 실습생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가운데 실습이 진행되어 있어 실습생이 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일들을 시켜 실습생 역할에 대해 혼란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선배가 응급처치와 전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 이상했고 응급구조사나 간호사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병원에서의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위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았다.”

“졸업 후 병원에 취업하려 했는데 취업되더라도 응급구조사 위치가 걱정되고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까 걱정된다.”

“병원 내에서의 실제로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적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응급구조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었다.”

“병실로 환자를 옮기는 것 같은 잡일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느껴져 기분이 이상했다. 환자 나르는 일이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더 화가 났다. 실습생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병원에서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병원 내 의료진이 아닌 보조 인력인 여사 같은 분들도 우리에게 잔심부름 등 단순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곤 해서 기분이 나쁘고 무엇을 배우러 왔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응급구조사의 현재의 위치와 처우에 대한 실망과 현 응급의료체계의 실태 파악으로 앞으로의

응급구조사의 역할이나 위치에 대한 우려도 경험하였고 병원 전 처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응급의료체계 현실에서 실망감을 느꼈고 부끄럽게 느껴졌다고 한다.

또한 이런 현 응급의료체계의 미흡함 때문에 졸업 후 1급 응급구조사가 해야 할 일이 많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도전하고 싶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하며 희망을 경험하기도 했다.

“교통사고 환자인데 거의 경추보호대도 안하고 그대로 오는 무성의한 구급대 현장처치를 보면 속상하고 간호사들이 구급대에서 처치를 거의 안해 온다고 말할 때 부끄러웠다.”

“119에서 미흡한 처치를 하고 오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다면 잘할 것 같다. 병원 전 처치의 현실이 허무하지만 희망도 보았고 오히려 응급구조과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CPR을 해보고 난 뒤 병원 내에서도 응급구조사가 설자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병원에서도 응급구조사가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전¹⁹⁾의 연구에서도 역할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가 가장 높은 스트레스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현 응급의료체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병원 내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한 응급구조사의 병원 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응급구조사를 채용한 병원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습 시 응급구조사 preceptor의 다양한 모델도 부족한 현실이므로 실습생들은 응급구조사 역할 정체성에 대한 혼란감을 느낄 수 있으나 이런 경험들로부터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구조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훌륭한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이 꼭 필요한 과정임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임상실습 담당 교수는 병원 실습 담당자들과의 실습 전 모임을 통해 병원 전 응급구조사 역할과 실습생들의 역할을 병원 실무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중재하고 학교와

병원간의 긴밀한 산학협력체제를 이루어 실습생들이 단순히 인력수급을 대신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고 학습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 번째,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첫 임상실습을 마치면서 ‘실습 후의 아쉬움’을 경험하였다.

실습이 끝나고 난 뒤 좀 더 열심히 할 꼴 하는 후회와 아쉬움을 느끼며 다음 번 실습 때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가 들었다고 한다.

“섭섭하고 정이 많이 들어 마지막 발표 후 허전했다. 계속 남아서 일하면 좋겠다.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다음 실습은 정말 열심히 할 새로운 각오가 생긴다.”

“죽어가는 환자의 생명이 내손에 달렸다는 생각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더 많은 환자에게 다가가 많은 처치방법을 배울 걸 하는 후회가 든다.”

또한 그동안 많이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었던 의료진들에게 아쉬움을 느끼고 고마움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잘 챙겨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근무시간에는 많은 질문을 하실 때 질문에 답변을 못해 당황스럽지만 그 분 때문에 훨씬 편안하고 적극적으로 실습하게 되어 고맙다.”

실습이 힘들었지만 끝나고 난 뒤에는 좀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실습동안 도움을 주었던 의료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경험을 하였고 이런 경험들이 실습 후 실습과 연계된 강의를 통해 다음 실습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곱 번째,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첫 임상실습에서 ‘죽음의 체험’을 경험하였다.

응급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평상시 볼 수 없었던 많은 질병과 죽음을 실습 중에 간접체험하면서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하였고 죽음이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죽어가는 환자에 대해 살리고 싶은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질병으로 고생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

들과 한편에서는 살기 싫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조적 모습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그람옥손 중독 환자가 입원했을 때 의식이 멀쩡해서 약 먹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 환자가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대동맥 박리환자와 보호자가 우는 것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파, 남은 가족들이 불쌍하고 정말 살리고 싶었어요. 내 가족 같아서 duty바뀔 때 동료에게 잘 봐주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많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현대 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무력감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젊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갈 때 BVM를 하면서 갑자기 살아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며 하나라도 더 해보아서 어떻게 하든 꼭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엠브만 잡고 있었고 결국 그 환자는 죽었어요.”

응급실 안에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의료진들은 환자의 죽음에 대해 슬픈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일들처럼 죽음을 무감각하게 대하는 모습은 실습생들에게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초연한 의료진의 모습이 이상해 보였던 실습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 앞에서 일상의 일들처럼 대하던 의료진의 모습을 닮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죽어가며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태도가 너무나 아무렇지 않아서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었다.”

“죽은 환자에 대한 느낌이 처음엔 슬픈데 자꾸 보니 면적이 되서 독해지고 공포영화도 안 무서워하게 되었다.”

“죽음앞에서 나도 모르게 농담하고 있고 무덤덤해지는 나를 보며 내가 이렇게 무서운 아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죽음과 실습이라는 현실의 괴리감을 경험하기도 했다.

“환자가 죽었을 때 CPR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심한 갈등을 느꼈다.”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CPR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 무섭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¹⁰⁾의 연구에서도 ‘무디어 가는 감정 변화에 대한 갈등’으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의 감정 변화를 표현하였으나 응급구조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¹⁹⁾의 연구에서는 ‘실습 중 사망환자가 있는 경우’ 가장 적게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¹²⁾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근무 중 임종 환자를 대할 때’도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응급실을 실습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¹⁸⁾의 연구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이 우선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다른 병동실습과는 달리 응급실실습 시 많은 죽음들을 간접 경험하게 되어 초기에는 많은 충격을 받지만 점차 무디어가면서 그런 내적변화에 또한 갈등함을 볼 수 있다. 김⁶⁾의 연구에서 보면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군이 죽음에 대해 더 많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삶과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을 가졌다고 답해 임종을 맞이해야 하는 환자들을 접할 기회가 많은 응급구조과 학생 등이 좀 더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통해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철학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삶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내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지도교수는 세심한 관심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첫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응급구조과 실습은 응급의학과가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스스로 숙식을 해결하는 것과 먼 거리에서 교대 시간에 맞춰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생활환경 변화에서 오는 불편감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또한 3교대로 인한 실습상황에서의 시간엄수와 불규칙한 생활, 잠을 잘 수 없는 밤 근무와 긴장

속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 실습생들은 밤 근무 중에도 잠시 의자에 앉아 보는 것도 눈치가 보여 계속해서 있게 되어 실습 기간 내내 상당히 많은 신체적 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처음 집을 떠나 생활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의 끼니 문제부터 주변 상황이 뒤바뀐 상황이 거의 생지옥과 같았다.”

“낮 근무(day)일 땐 친척 집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 출근할 때 지각할까 봐 조마조마해서 늘 뛰어 다녔다.”

“3교대 근무로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피곤해서 알람 소리 날 때가 제일 싫었다. 잠 못 자면서 밤 근무를 할 때 너무 졸리고 힘들었다.”

“실습시간 내내 서 있어야 하는데 어디 잠깐 앉을 때도 없고 또 눈치도 보여 서 있다 보면 다리가 뚱뚱 붓고 힘들었다.”

“실습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너무 피곤해서 책 좀 보려다 어느새 잠들고 눈 뜨면 다시 실습가야 했다.”

실습으로 인한 생활환경변화와 특수한 실습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은 응급구조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⁸⁾의 연구에서 실습시간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¹⁰⁾의 연구에서는 실습 후 시간에 쫓기고 급해짐을 경험하고 또한 신체적 피로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³⁾의 연구와 서¹³⁾의 연구에서도 ‘신체적 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된 환경으로 인한 임상실습자체가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전¹⁷⁾은 집담회 할 장소 및 설비가 있고 참고서적을 구비된 바람직한 학습환경이 된다면 학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임상실습과 관련된 학습을 할 수 있고 토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행정적인 배려가 따른다면 더 바람직한 실습이 될 것이다.

긴장 속에서 신체적 피로를 느끼며 실습을 하기 때문에 서로 예민해지고, 병원에서나 실습이 끝난 뒤에도 실습생끼리 거의 함께 지내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팀웍이 잘 되지 않고 평소 익숙하지 않은 동료와는 실습 시 더 어색하고 싫고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 끼리끼리

지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동료실습생끼리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경험하였다.

병원 내에서의 응급구조사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간호사 등의 의료진과의 관계에서 무시를 당하고 차별대우를 당한다고 느끼고 실습생을 신뢰하지 않을 때 오는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보고서 때문에 보여주기 싫은데 보여 달라고 할 때, 보여 주기는 하지만 정말 싫고 그 아이와도 의의 상해져 그 후로는 계속 서로 불편했다.”

“팀웍이 힘들어서 다음 실습에는 의욕있는 친구들과 함께 실습을 해보고 싶다.”

“거의 대부분을 같이 지내고 서로 피곤하니깐 공동생활로 인해 더 끼리끼리가 되고 왕따인 친구는 더 왕따가 되는 것 같다.”

“처음에는 무엇이랴도 시켜주면 고맙겠지만 너무 습관화되어 환자 처치보다는 잔심부름, 청소, 반말, 병동으로 이송 등을 시킬 때 기분 나쁘고 서운하고 실습생들을 낮춰 보는 것 같았다.” “학교에서 겪을 수 없었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차별에 불쾌감을 느꼈다. 의대실습생만 챙겨주니 의대 못간 것이 속상하고 반면 의대실습생과 비교하니 더 잘해야겠다는 오기도 들었다.”

“겨우 시켜 주었더니 그것도 못하네라고 무시할 땐 속상했다.”

“의사, 간호사들이 전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환자도 의심의 눈초리로만 바라보는 듯했다.”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한 전¹⁹⁾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영역에서 ‘의사, 간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동료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³⁾의 연구에서는 의료진과 동료 실습생간의 대인관계 형성 시 어려움을 느껴 병원 내에서의 원만한 대인관계형성의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급실을 실습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¹⁸⁾의 연구에서도 성숙한 대인관계가 필요하다는 경험을 표현했다.

실습장에서의 사람들은 실습생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인적 환경이기 때문에 실습 지도교수는 대인관계형성의 장애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 실

습생들이 적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촉진적 역할을 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사전에 스트레스관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습 중 작성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하러 왔다가 보다 보고서를 쓰러 온 것 같다. 보고서에 억매여서 배기기도 하고 보고서에 대한 압박 관념으로 실습기간 내내 부담이 되었다.”

“하루 종일 실습하고 와서 보고서 때문에 또 밤늦도록 숙제를 해야 하나까 잠도 못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보고서에 대한 부담감은 응급구조과 학생들처럼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¹⁰⁾의 연구에서도 과제물을 작성하고 평가받는 것에 대한 걱정이 부담감으로 나타났으며 고³⁾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 과제물이 스트레스를 더해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임상실습 지도교수가 학생들에게 무리한 과중한 보고서작성과 발표 등의 부담을 주어 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상실습 시 실습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보고서의 학습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임상실습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적절한 과제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상과 같이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첫 임상실습을 통해 경험한 ‘새로운 상황에서 오는 긴장감’, ‘환자를 대할 때의 두려움’, ‘지식과 술기능력부족’, ‘적응이 되면서 느끼는 자신감’, ‘응급구조사 역할에 대한 지식’, ‘실습 후의 아쉬움’, ‘죽음의 체험’, ‘스트레스’의 여덟가지의 범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습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주관적인 실습경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그 진술에 의거하여 경험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응급실을 실습하는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경험하는 내용들은 다른 병원의 부서실습이나 소방서 구급차 동승실습에서의 경험과는 다를 것이다. 또한 처음 임상

실습을 경험한 경우와 그 후의 경험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다각도의 실습경험 연구는 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을 이해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첫 임상실습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없이 임상실습의 주체인 학생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Colaizzi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 임상실습을 통하여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경험한 바를 분석한 결과 205개의 의미있는 진술 및 그로부터 나온 87개의 도출된 의미에서, 34개의 주제와 21개의 주제모음, 8개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응급구조사의 첫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새로운 실습상황에서 오는 이질감, 위축감, 두려움과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상황에서 오는 긴장감’을 경험하였으며, 환자를 대하는 대인관계나 전염에 대해 걱정하는 ‘환자를 대할 때의 두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지식과 술기능력부족’으로 무력감과 답답함, 지식습득욕구를 경험하였고, 익숙함과 보람으로 인한 ‘적응이 되면서 느끼는 자신감’을 표현하였고, ‘응급구조사 역할에 대한 지식’을 통해 역할 정체성에서 오는 혼란감과 응급구조사 역할의 필요성인식과, ‘실습 후의 아쉬움’과 고마움, ‘죽음의 체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죽음에 대한 무력감, 무감각, 죽음과 현실에서의 괴리감을 경험하였고, 환경변화로 인한 어려움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보고서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임상실습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습초기의 관심과 지지로 빠르고 긍정적인 적응을 하도록 돕고 규칙적인 실습지도시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감, 더불어 죽음에 대한 간접 체험을 경험하는 실습생들에게 관심과 정서적 지지

가 이루어지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임상실습이 성숙한 경험이 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병원 내에서의 응급구조사 역할정립을 통한 긍정적인 전문직 정체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임상실습을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문제 등에 관한 학교와 병원 간 산학협력체계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이 요청되고 두기관의 산학협력체계가 활발히 활성화되어야 임상교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첫 임상실습 경험과 반복된 실습경험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지도방안을 모색하는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2) 소방서 실습 경험과 임상실습경험을 비교하여 긍정적이 학습경험이 되도록 각각의 실습에 적절한 실습지도방안을 모색하는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3) 실습생들이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4) 환자사망과 관련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Elrich, H. : The clinical education of the medical student.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42. 1967.
2. 고봉연, 광민철, 신현남 : 응급구조과 학생의 현장실습 수행활동조사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 3(3) : 55-64, 1999.
3. 고성희, 김기미 :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 33(2) : 59-72, 1994.
4. 권혜란 : 응급구조과 학생 현장실습의 실제와 개선 방안, *한국응급구조학회*, 6(6) : 15-26, 2002.
5. 김광주, 이향련, 김귀분 : 응급전문 간호사의 교육과정안 개발. *간호학회지*, 26(1) : 194-222, 1996.
6. 김태숙, 조미경 :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간호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충남 의대잡지*, 20(1) : 275-292, 1993.
7. 문미숙 :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 *한국 간호교육학회지* 4(1), 15-27 : 1998.
8. 박정미, 김순심 : 응급구조학생들의 실습대상 지별 현장실습 만족도, *한국응급구조학회*, 2(2) : 7-25, 1998.
9. 박정숙 : 이완술 사용이 간호학생들의 첫 임상실습 직전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간호학회지*, 16(3) : 123-130, 1986.
10. 박정원, 하나선 :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 *정신간호학회지* 12(1) : 27-35, 2003.
11. 박청자: 첫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인지 정도에 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1(2) : 149-164, 1994.
12. 박춘화, 고효정 : 응급실 간호사의 근무 중 스트레스와 간호업무 수행과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 1(1) : 146-157.
13. 서문숙, 김명희, 전미영 :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을 적용한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 *기본간호학회지*, 3(1) : 128-140, 1996.
14. 신경림 : 간호학생의 첫 학기 임상실습 체험연구. *성인학회지*, 8(1) : 156-168, 1996.
15. 신경림 : 임상교육의 효과적인 대안에 관한 연구, *대한 간호*, 32 : 5 : 93-104, 1993.
16. 엄애현 : 응급실 내원 환자의 간호요구 조사. *응급간호학회지*, 5 : 22-45, 1996.
17. 전영자 : 임상교육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10(3), 47-53 : 1971.
18. 전점이 : 간호학생이 경험한 임상실습-응급간호실습을 중심으로-. *동의논집*, 28 : 447-459, 1998.
19. 전화연, 김 걸, 안홍기 : 응급구조과 학생이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응급구조학회, 3(3) : 43-54, 1999.
 20. 최은숙, 이인수 : 일부 응급구조전문대학생의

자아개념과 현장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
 국응급구조학회, 1(1) : 87-99, 1997.

=Abstract=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of EMT Students

mi-lye Baek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of EMT students, so to better understand their' experience in clinical training.

The subjects were 30 EMT students of C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in C city, who were demonstrating at the emergency room in C, T, S, W city.

This study was approached by phenomenological metho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laizzi's method. the results were as a follows.

From the protocol, significant statements were organized into 34 formulated meanings. from the formulated meanings, 21themes were identified, organized into 8 theme clusters, and then categories.

EMT students got experienced 'tension resulting from new situation', 'fear in contacting with patients', 'lack of knowledge and skill', 'confidence feeling from being adapted', 'facing up to Paramedic role', 'experience of death' and 'str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o use as basic data for students attending clinical experience for the first time.

*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 Chungu-National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

